

## 고 은

시인,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회 이사장

“분단의 경계를 넘어 통일로! 표준어의 경계를 넘어 민족 공통어로!”

분단 이후 진행되어 온 남과 북 사이의 언어 이질화를 극복하기 위한 겨레말큰사전 편찬 사업이 남과 북이 보조를 맞추는 가운데 착착 진행되고 있다. 약 30만 개의 올림말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겨레말큰사전은 오는 2013년 세상에 나올 예정이다. 겨레말큰사전 편찬 사업은 단순히 남과 북의 어휘를 한데 모으는 작업이 아니라 겨레말에 녹아 있는 우리 민족의 유산과 얼을 발굴하여 민족 공동체 의식의 폭과 깊이를 늘리고 아울러 통일된 조국의 밝은 미래를 담보하는 일이다.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 이사장으로서 사전 편찬 사업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고은 시인을 만나 겨레말큰사전의 의미와 진행 상황을 들어 본다.

답변자: **고 은**(시인/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 이사장)

질문자: **장승욱**(작가)

때: 2007년 11월 20일

곳: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

**장승욱:** 겨레말큰사전 편찬이라는 큰일을 맡아서 부담이 크실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임하고 계십니까?

**고 은:** 시를 쓰는 사람으로서 모국어 때문에, 모국어에 기대어, 모국어



2007년 8월 평양에서 열린 겨레말큰사전 공동편찬위원회 제10차 회의에 참석한 고은 시인

에 받을 디디고 이제까지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나에게 모국어어를 하나로 결집하는 일에 동참할 기회가 주어져 또 하나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7~8년 뒤 겨레말큰사전 발간이라는 1차 사업 목표가 이뤄진다면 죽어도 원통할 것이 없겠다, 내 생애의 마지막을 걸어야 한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장승욱:** 겨레말큰사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고 은:** 겨레가 갈라져서 서로 자신들의 말이 참이다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다가는 남과 북이 다른 언어를 쓰는 족속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절망감이나 위기감이 우리를 괴롭혀 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남과 북이 하나의 말로 만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는 것이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미 늦었는지도 모르지만, 지금이 우리 겨레말의 본래 모습과 자취를 더듬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볼 때, 남과 북이 만나 겨레말의 터전을 함께 일구는 일의 의미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남북뿐 아니라 연변, 연해주를 비롯한 지구 도처에서 겨레말의 씨앗이 다음 씨앗으로 이어지는 모든 것들을 모아서 그것을 우리를 이을 자손들이 이어서 짊어지게 하고, 그리하여 자기들 시대의 모국어를 만들어 가게 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할 때, 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제일의적인 사명이라고 느낍니다.

**장승욱:** 지금의 언어 현실과 관련해서 겨레말큰사전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고 은:** 때마침 인터넷 언어의 시대가 와서 언어 변화, 언어 파괴, 또 새로운 언어의 출현이 무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가까이는 한일병합, 멀게는 임진왜란 때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격변의 시대입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기존 언어의 조건들을 모두 떠나 버린 언어가 태어나고, 우리가 문화유산으로 물려받은 기존의 언어를 한순간에 해체해 버릴 수 있는 힘이 만들어질 텐데, 그렇게 되기 전에 그동안 우리가 살아온 흔적으로서의 문화의 기호, 삶의 기호들을 일정한 틀에 소장해 놓고, 그것으로 이후의 언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언어적 장치가 필요하지요. 사전 편찬 작업에는 이런 문명사적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승욱:** 겨레말큰사전이 추구하고 있는 목표나 사명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고 은:** 사전은 그 나라 문화의 근본이기도 하고 척도이기도 합니다. 우리

가 다른 나라를 여행할 때, 운전기사, 공중 화장실, 간판을 보면 그 나라 문화의 수준을 알 수 있듯이 어떤 나라 문화의 내밀한 풍경을 들여다보려면 사전을 들춰 보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남과 북을 아울러 대단히 부끄러운 얼굴만을 가지고 있었지요. 전공 학자들이 도제들을 시켜서 단어들을 만들어 넣은 것이 사전으로 통용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 문화생활이 이뤄져 온 것입니다. 북한의 「조선말대사전」을 보더라도 그렇게 집요하게 밤낮을 거기에만 매달려 있는 사람들이 작업한 결과인데도 적지 않은 오류가 발견됩니다. 그런 것을 볼 때, 단어장도 아니고 사전을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깨닫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만드는 것은 최소한 이런 불성실한, 또는 미숙한 상태를 좀 더 문화적으로 완성된 상태로 이끌어야 한다는 과제가 있습니다. 또한 남쪽에는 표준어, 북쪽에는 문화어라고 해서 양쪽이 다 표준 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사투리나 옛말 같은 것은 거칠게 말해서 내팽개쳐진 상태에 있습니다. 이번에 만들 사전에는 지역마다 존재하는, 조상들이 살아온 지혜와 이력이 담겨 있는 생명으로서의 언어들을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반영해서 지금까지 사전에서 소외되었던 낱말들까지도 담아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탈표준 주의라고나 할까요.

어쨌든 사전을 만들면서 여러 가지를 추구하다 보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단수가 아니라 복수라는 것을 느낍니다. 사명들이 참 많이 있다……, 사명들이 우리를 쫓아와서 방향을 가리켜 주기도 하고……. 이런 것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장승욱:** 2007년 4월에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이 공포되었지요?

**고 은:**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보기 드물게 거의 만장일치에 가까운 지지로 통과됐습니다. 그럼으로써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는 남북 교류를 하는 민간단체 가운데 단일 사업을 법으로 규정하고 지원하는 최초의 경우가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국가적 사업이 된 것이지요. 남과 북 모두에

게 가장 위대한 유산인 우리말의 통일이 민족의 미래를 여는 일이라는 것을 국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받아들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법으로 보장을 받게 돼 있어서 마음이 든든합니다.

**장승욱:** 남과 북이 보조를 맞추는 일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고 은:** 지금 진행되는 걸 보면 놀랍도록 진전이 빠릅니다. 남북 공동 편찬 위원회도 10차를 넘겨 초기 단계를 넘어서 중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되리라고 낙관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문 규범이니 하는, 남과 북이 앞으로 이견을 좁혀 나가야 할 난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결단이 필요한 것들이지요.

처음에는 아무래도 남과 북이라는 것 때문에 서먹하게 시작이 됐지만, 이제는 피차 익숙해져 서로 허물없이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쪽도 아주 열의가 있습니다. 확연히 달라진 게 뭔가 하면 처음에는 양쪽 다 권위 있는 전문가들만 대표로 나왔었는데, 지금은 양쪽 다 실무자, 젊은 사람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형식에 얽매이지 않은 자발적인 토론과 협의가 분야 별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회의 때 보면 이쪽에 한 무리, 저쪽에 한 무리 식으로 동아리가 여러 개 만들어져 가슴 벅찬 장관을 이룹니다. 회의 자체가 아름다움입니다. 이런 것이 통일 과정의 미학적인 소통이라고 저는 느낍니다.

**장승욱:** 통일이라는 우리 민족의 지상 과제를 놓고 볼 때, 겨레말큰사전 편찬은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고 은:** 통일이 겨레말큰사전이 나온 뒤에 될지 그 전에 될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이 작업이 통일을 위한 문화적 근거지가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통일을 가장 창조적으로 장식할 수 있는 행위이며, 통일 이전이라면

통일을 위한 원칙을 제공해 주는 것이라는 확신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보면 통일 이후를 위한, 통일이 목적이 아니라 통일 다음의 우리 겨레에 바쳐지는 헌화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승옥:** 올림말 수를 30만 개로 정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고 은:** 사전은 한 번 만들어지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고두고 보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전은 영원한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완성품인 사전은 없습니다. 사전에 수록된 것뿐만이 아니라 실리지 못하는 것까지 포함해 언어의 창고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만 규모와 예산의 한도 때문에 30만 개가 이 시점에서는 적정량이라고 판단했고, 그렇게 남과 북이 합의를 한 것입니다. 또 국어학자들이나 사전 편찬자들의 상식이 작용한 결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장승옥:** 사전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모국어의 보물 창고일 것입니다. 시인으로서 모국어에 대한 생각이 남다르실 텐데?

**고 은:** 문학청년 시절에 사전을 두 번 몽땅 외운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말이 다 내 안에 들어왔다고 생각했지만, 언어는 타자라고 생각합니다. 밥은 눈 감고도 먹을 수 있지만, 언어는 쓰지 않고 기억에서 지워지면 바로 남이 됩니다. 멕시코 애니깽 농장에 농노로 갔다가 쿠바로 흘러가 살고 있는 한인들을 보면 우리말이 없어요. 모국어가 뭘니까? 엄마한테 젓 먹을 때부터 배운 언어인데, 그래서 영원한 기억으로 각인돼 있을 줄 아는데, 이게 깨져 버린 거예요. 모국어라고 하지만 자기와 동행하지 않으면 다른 나라 언어가 되는 거예요. 자기를 떠나버리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름은 김씨, 이씨고 얼굴도 한국인이지만 언어는 그렇지 않아요. 모국어라고 영원히 자기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사전에 언어를 하나하나 소장해 놓고 늘 쓰지 않으면 이건 있으나 마나죠.

언어는 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체험의 지속, 영원한 것이 아니라 영원

을 자기 체험 속에 반영해서 자기 언어로 만드는 거죠.

조국의 위기 앞에서 언어를 지키기 위해 치열한 운동을 펼쳤던 주시경 선생이나, 당시 거의 유일한 국제적 지식인으로서 유학에서 돌아와 독립신문을 창간하고 우리말을 생활화하기 위해 애쓴 서재필 선생 같은 분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얼마나 우리말을 확대하고 업신여기며 우리 언어의 명예를 떨어뜨리고 있는 것인가 반성도 하게 됩니다. 우리 언어를 지키고자 했던 선대들의 처절한 노력, 그 깊은 뜻을 일부라도 현재화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장승욱:** 모국어를 섬기는 시인으로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부탁드립니다.

**고 은:** 84년인가 김우창 교수가 이제는 단테의 신곡 같은 작품을 쓰라고 충고를 했어요. 그때는 흘려들었지만……. 내가 단테를 좋아합니다. 이 사람은 당시의 지배 언어인 라틴어로 글을 쓴 게 아니라 자기 고장 피렌체 말, 말하자면 사투리로 썼죠. 그때는 라틴어 아니면 행세를 못할 텐데 그걸 버리고 자기 어머니한테 배운 언어로 썼거든요. 나는 그것이 '시인의 언어적 진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신곡이 시의 사표로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나는 그것을 서구문학이다, 기독교 문학이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지구상의 문학이 있을 뿐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제 머리 위에 단테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의 모국어와 모국어로 달성한 시의 경지, 그런 것이 내 머리 위에 얹혀 있어요. 그게 내 모자가 되어 있지요. 내가 모국어를 섬기는 것은 내 본능이기도 하지만, 늘 문학을 새로 시작하는 나의 의식이기도 합니다.

**장승욱:** 좋은 말씀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고 은:** 고맙습니다.